

“조연서 주연으로”... K컬처, 지구촌 대중문화 ‘일상’

뮤지컬·K팝 확장 등 ‘열풍’ 세계로 뻗어간 ‘전통놀이’ 韓 보편적 문화언어 전파 “창작 협업·예술지원 확대”

서울 도심이 브로드웨이 무대의 배경이 되고, K팝은 영화의 주요 소재가 되며, 한국의 전통놀이는 글로벌 게임문화로 재탄생하고 있다. 단순히 영화의 한 장면에 스티븐 존재에서 이제는 전 세계 문화의 ‘조연’을 넘어 ‘주연’으로, 글로벌 대중문화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로 뻗어간 ‘K-POP·전통놀이·뮤지컬’

넷플릭스 영화 부문 전 세계 41개국에서 1위(6월26일 기준)를 기록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팝 아이돌 그룹이 악령과 맞서 싸우는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단순히 음악뿐 아니라 다방면의 한국 문화가 작품 곳곳에 융합된 하이브리드 콘텐츠다. 이 작품을 향한 뜨거운 관심은 K팝이 단순히 아이돌 소비문화를 넘어, 하나의 세계관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21년 첫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를 강타하며 K-문화 열풍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주류로 부상한 K-콘텐츠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는 시각도 있다. 달고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들이 이야기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면서 한국적 정서가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공개 28일 만에 넷플릭스 사상 최다 시청 기록을 경신하며 역대 최고 흥행작이 된 ‘오징어 게임’ 열풍은 단순히 드라마 감상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각종 패러디와 밈, 코스튬 문화로 확산되며 하나의 글로벌 신드롬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중음악·영화·드라마보다 확장성이 낮아 ‘K 열풍’의 또 다른 영역이 될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공연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성공스토리가 쓰였다.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은 연극·뮤지컬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알려진 토니상 6관왕(작품상·연출상·극본상·무대디자인상·음악상·남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지난 2016년 서울의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로 브로드웨이 무대에 입성한 뒤로도 극찬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어쩌다 해피엔딩’은 올해 최고의 발견”이라며

“한국의 스토리텔링이 글로벌 무대에서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쩌다 해피엔딩’은 근미래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이는 한국적인 감성에 전 세계 관객들이 거부감 없이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다.

●‘배경’에서 ‘중심’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콘텐츠

이러한 변화는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극적인 전환이다. 2015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서울이 주요 촬영지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한국의 도시 풍경이 블록버스터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화제였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의 제품이 영화 속 배경 소품으로 등장하는 것도 주목받았다.

오늘날 한국은 단순한 외부 콘텐츠의 소비지나 배경지를 넘어섰다. 세계적인 플랫폼과 시상식에서 ‘한국’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콘텐츠의 본질이 자 중심이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류 초기 시절부터 축적된 기획사의 제작 역량, 정부의 꾸준한 문화산업 지원, 전 세계 소비자들의 다양성 수용 태도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K-콘텐츠가 대중문화 영역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장르로 확산될 것이

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지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클래식, 시각예술 등 문화예술 전반에서 장르 간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 속에서, K-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창작자 간의 융합적 협업 생태계 조성이 이뤄진다면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협업해 세계 시장을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제2의 어쩌다 해피엔딩’이 나오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예술지원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의 경우 초기 기획 단계에서 우란문화재단의 지원이 있었다. 현재 국내 뮤지컬계는 표면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대형 라이선스 공연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술계는 창작자들이 가진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오리지널 작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면, 민간 차원의 예술지원 시스템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연계 인사 A씨는 “창작의 다양성과 문화적 자생력을 지향하는 데 있어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기획을 뒷받침하는 지원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연주단체 ‘퓨전 앙상블 불랑’.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 7월 ‘목요콘서트’

빛고을아트스페이스서

광주의 목요일이 퓨전국악, 한국무용, 더블베이스 앙상블 등 다채로운 무대로 들쭉인다.

광주문화재단은 7월 목요콘서트 무대를 3차례(3·10·17일) 오후 7시30분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7회차 퓨전 앙상블 불랑의 퓨전국악 ‘오매 감동이어라!(하·노·애·락·정)이 있는 5가지 매력 콘서트’ △8회차 더댄스컴퍼니의 ‘가야금병창이정아 × 한국무용 문다솜·월하현무(月下絃舞)’ △9회차 전남 프렌즈 베이스 앙상블의 ‘더블베이스 이야기 #1’ 무대로 꾸며진다.

3일 공연을 선보이는 퓨전 앙상블 불랑은 전통 국악부터 오페라, 드라마 OST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아우르는 연주단체

다. 이날 공연에서도 퓨전국악을 통해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예정이다.

이어 10일 무대는 가야금병창과 한국 무용이 조화를 이룬 전통예술의 새로운 감성을 선사할 예정이다.

17일 공연에서는 전남 프렌즈 베이스 앙상블의 품격 있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클래식 음악 및 영화음악, 대중가요 등을 더블베이스 악기로 연주하며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목요콘서트’ 입장료는 1인당 5000원이며, 수익금은 전액 공연팀에게 전달된다.

공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jcf.or.kr>),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https://bitculture.gjcf.or.kr>),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https://dmg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및 문의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062-670-7942)으로 하면 된다.

박찬 기자

전남도립국악단, 무안서 ‘그린국악 시즌3’ 공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공연 광복 80주년 기념 대작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감각적인 무대로 국악의 오늘과 내일을 조망해 온 전남도립국악단이 토요일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3로 다시 관객 곁을 찾는다.

이번 시즌은 7월5일부터 9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전라남도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국악의 내일을 그리다(Tomorrow of green gugak)’를 주제로 열리는 시즌3의 첫 공연은 특별초청 무대로 꾸며진다. 가야금 산조의 보고장 영암의 문화예술단

체 ‘더현음재’와 전국 각지의 전통 연희 예술가들이 결성한 집단 ‘사도’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 공연에서는 25현 가야금 3중주 ‘신민요 그리고 트로트’, 마한췌 있다, 있다 ‘맥(脈)’, 연희작품 ‘경계(Boundary)’, 전통연희마당 ‘판굿, 살판’ 등이 선보인다. 전통 가무악과 서양 악기가 어우러지는 실험적 구성으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대작 공연도 예정돼 있다. 오는 8월2일 초연되는 칸타타 ‘백범 김구’는 전남도립국악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창작 공연으로, 김구 선생의

회고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주요 사건들을 음악극 형식으로 엮어낸다.

16일에는 앙코르 공연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어린이국악단이 참여하는 무대, 젊은 연주자들의 실험정신이 반영된 멀티 연주 ‘The wolf of east’, 컨템포러리 가야금 시나위 ‘파랑, 방’, 아쟁 산조 등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무대에 오른다.

조용한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공연들을 준비했다”며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준비한 칸타타 ‘백범 김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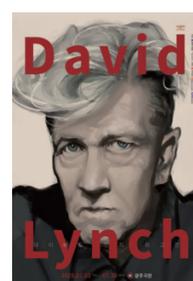
‘켈트 영화의 제왕’ 데이비드 린치 회고전, 광주서 만난다

3일부터 광주극장

‘켈트 영화의 제왕’ 데이비드 린치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회고전(사진)이 7월3일부터 30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주최하는 이번 회고전에서는 올해 초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많은 영화 팬들이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데뷔작부터 근작까지 만날 수 있다.

데이비드 린치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연출과 초현실주의적 미학으로 영화사에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감독이다.



이번 회고전에서는 켈트영화의 고전이자 린치의 감독 데뷔작으로 평가받는 ‘이레이저헤드’(1977)를 시작으로, 기형적인 외모를 지닌 실존인물 존매릭의 삶을 그린 ‘엘리펀트 맨’(1980), 감독 특유의 심리적 불안을 강렬히 담아낸 ‘블루 벨벳’(1986), 제43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광란의 사랑’(1990), TV 시리즈 ‘트윈 픽스’의 프리퀄 ‘트윈 픽스’

(1992), 마를린 맨슨, 데이비드 보위 등 뮤지션들의 참여로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로스트 하이웨이’(1997), 잔디깎는 기계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는 노인의 여정을 다룬 ‘스트레이트 스토리’(1999), 린치 감독의 작품 세계를 집대성한 명작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가 상영된다.

특히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BBC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프랑스 영화지 카이에 뒤 시네마가 뽑은 ‘2000년대 최고의 영화’로 꼽힌 작품이다.

오는 7월25일에는 김병규 영화평론가가 참여하는 ‘스트레이트 스토리’ 시네토크도 예정돼 있다.

박찬 기자